'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도전' 황선홍호, 오늘 조 1위 두고 한일전

한국·일본, 나란히 2연승으로 B조 1위 다툼

조 1위 올라야 8강에서 개최국 카타르 피해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가 파리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서 숙명의 라이벌 일본을 상대한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2일 오후 10시(한국시각) 카타르 알라이얀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일본을 상대로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최종 3차전을 치른다.

앞서 아랍에미리트(1-0), 중국(2-0)을 차례로 꺾은 한국은 일본과 함께 2승으로 최종전 결과와 상관없이 8강 진출에 성공했다. 각 조 상위 2개국이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2024 파리올림픽 아시아 예선을 겸하는 이번 대회에서 3위 이내에 들어야 파리에 직행할 수 있다. 4위는 아프리카의 기니와 플레이오프 승부까지 펼쳐야 한다.

1차적으로 4강에 안착하기 위해선 8강에서 보다 수월한 상대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일본과 조별리그 최종전이 중요한 이유다. 일본에 이기면 1위, 지면 2위다. B조 1위와 2위는 각각 A조 2위, 1위와 8강 승부를 갖는다.

A조 1위는 개최국 카타르로 껄끄러운 상대다. 조별리그 2경기에서 인도네시아(2-0), 요르단(2-1)을 꺾고 2승을 거뒀다. 홈 텃세를 극복해야 한다.

2위는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호주, 요르단 모두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일본(이상 2승 승점 6)은 골득실(+3)과 다득점(3골)까지 동일하다.

만약 최종전에서 90분 안에 승부를 내지 못하면 대회 규정에 따라 승부차기를 통해 조 1위를 가려야 한다.

황 감독은 일본에 대해 "오랜 시간 조직력을 다져왔고, 조직력 형태를 봐선 이번 대회에 참가한 팀 중 톱 수준"이라며 "전방 압박, 여러 가지 빌드업 체계 등 다양성이 많다. 상대를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속도 면에서도 경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중앙 수비라인에 균열이 생긴 게 불안요소다.

서명관(부천)은 중국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고, 변준수(광주)는 경고누적으로 일본전에 출전할 수 없다.

황 감독은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하다. 묘수를 찾아내야 한다"면서도 "(일본전 경기 전까지) 시간이 이틀밖에 없어서 종합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지, 코치진과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국 축구는 1988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2020 도쿄올림픽까지 9회 연속으로 올림픽 본선에 진출했다. 올림픽 최다 연속 출전 세계 기록이다.

뉴시스

황선홍 U-23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19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2차전 한국과 중국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 대한축구협회 제공)

더 던지고 싶었다니…꽃감독 감동 "외인투수에 바라는 딱 그 모습"

KIA 외국인 투수 네일, 7이닝 1실점 막아…이범호 감독 "최근 등판 많은 불펜진에 여유 줘"

"이런 모습을 바랐다".

KIA 타이거즈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이 또 한 번 에이스의 위력을 과시했다. 2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 선발등판해 7이닝을 굳건히 지켰다. 4안타와 1볼넷 1사구를 내주고 5개의 탈삼진을 곁들여 1실점으로 막았다.

1회 박민우에게 당했다. 우월 2루타를 맞고 도루를 허용했다. 권희동을 삼진으로 잡았으나 손아섭의 빗맞은 포수 앞 땅볼 안타때 한 점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실점이었다.

이후 투심과 스위퍼를 앞세워 7회까지 별다른 위기없이 영의 행진을 이어갔다. 84구로 7이닝을 삭제했다. 최고 152km짜리 투심(30개)을 중심으로 스위퍼(31개), 커터(11개), 직구와 체인지업을 던지며 NC 타선을 봉쇄했다. 이날 승리로 시즌 4승을 따냈고 평균자책점도 1.14를 기록했다. 네 번째 퀄리티스타트이자 두번째 QS+를 따냈다. 이닝을 먹고 승리를 가져오는 에이스의 모습이었다.

에이스가 척척 아웃카운트를 잡아주자 타선도 폭발했다. 5회 이우성의 스리런홈런 포함 5점을 뽑아 승기를 잡았고 7회 최형우의 2타점 2루타 등 또 3점을 보태 승리를 선물했다. 특히 이번주 불펜 필승조 투수들이 잦은 등판으로 다소 지쳤으나 완벽하게 휴식을 가져다 주었다. 감독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이범호 감독은 "외국인 투수에게 바라는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는가. 최근 필승조 등판이 다소 많은 상황이었는데 네일이 7이닝 동안 상대타선을 단 1실점으로 묶으면서 팀 승리와 함께 불펜진에도 여유를 줬다"고 박수를 보냈다.

네일은 "경기 초반에는 어려운 승부였다. 상대 타자들이 좋기도 하고 커트를 많이 하면서 승부가 길어졌다. 빠르게 적응하고 초구 카운트를 빠르게 잡고 들어가게 주효했다. 땅볼 타구도 많이 나왔고 수비들의 도움을 받아 이닝을 길게 가져갔다. 타선에서도 빅이닝이 나오며 한결 수월하게 던질 수 있었다"며 말했다.

이어 "무볼넷 이닝 기록 인지하고 있었다. 언젠가는 깨질 기록이긴 하지만 얼마나 길게 갈지 궁금하긴 했었다. 몇 이닝인지 나도 세고 있진 않았다. (3회) 몸에 맞는 볼 허용하고 만루에서 투구 리듬이 맞지 않았다. 타이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점을 최소화 하자는 생각이었고 포수 사인대로 잘 던져 이닝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투구수가 조금 여유 있었는데 아직 시즌 초반이기도 하고 지난주 경기에서 많이 던지기도 해서 (주 2회 등판, 100개 넘는 투구) 욕심은 나긴 했지만 괜찮다. 불펜 투수들이 좋기 때문에 잘 던져줄 것이라 믿고 마운드를 내려왔다"며 웃었다. 더 던지고 싶었다니 감독이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외국인 에이스였다.

이슬비 기자

샌디에이고 김하성, 5G 연속 안타…시즌 타율 0.232

토론토전 4타수 1안타 1타점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이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었다.

김하성은 21일(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펫코 파크에서 열린 2024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경기에 6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 4타수 1안타 1타점을 올렸다.

지난 16일 밀워키 브루어스전부터 5경기 연속 안타를 이은 김하성의 시즌 타율은 0.232로 조금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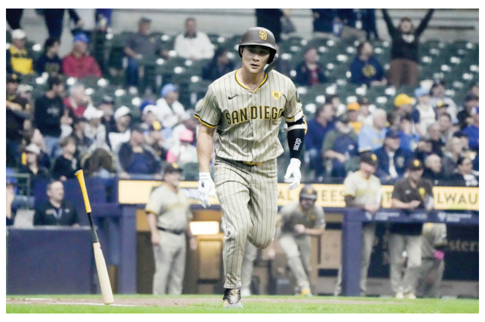
초반 김하성의 방망이는 잠잠했다.

2회말 선두 타자로 나와 2루수 뜬공으로 잡혔고, 4회 1사 1, 2루 찬스에서는 토론토 선발 호세 베리오스에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6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선 우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베리오스에 꽁꽁 묶였던 김하성은 팀이 1-4로 끌려가던 8회 1사 2루에서 구원 투수 에릭 스완슨의 초구 포심 패스트볼을 공략, 중전 적시타를 터뜨렸다.

그러나 샌디에이고는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고 2-5로 토론토에 졌다.

한편, 이날 샌디에이고의 마이크 실트 감독과 주릭슨 프로파는 1회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 당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이 16일(현지시각) 미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아메리칸 패밀리 필드에서 열린 2024 미프로야구(MLB) 밀워키 브루어스와 경기 1회 초 3점 홈런을 친 후 보란 듯이 1루로 향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20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4 미프로야구(MLB)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 6회 말 2루 앞 땅볼을 치고 있다. 이정후는 5타수 2안타(1홈런) 2타점 2득점으로 활약하며 팀의 7-3 승리에 기여했다.

21일 만에 시즌 2호포…이정후 "욕심 안 냈는데"

시즌 두 번째 손맛을 본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밝게 웃었다.

이정후는 21일(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2024 메이저리그(MLB)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경기에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 1홈런 2타점을 기록했다.

첫 타석부터 홈런을 쏘아 올렸다.

이정후는 0-1로 끌려가던 1회말 상대 에이스 잭 갤런의 2구째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쳐 오른쪽 펜스를 넘겼다.

지난달 31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원정경기에서 빅리그 데뷔 첫 홈런을 쏘아 올린 지 21일 만에 나온 시즌 2번째 아치다. 홈구장 오라클 파크에서 홈런을 날린 건 처음이다.

이정후는 이날 팀이 5-3으로 앞선 8회 1사 2루에서 미구엘 카스트로의 9구째 체인지업을 공략, 적시 2루타를 날리기도 했다.

이정후의 활약에 힘입어 샌프란시스코는 애리조나를 7-3으로 이겼다.

이정후는 경기 후 현지 매체들과 인터뷰에서 홈구장에서 날린 첫 홈런에 대해 "기분 좋다"며 활짝 웃었다. "홈런 타자가 아니기 때문에 홈런을 욕심을 내진 않았는데, 홈런을 치게 돼 기분 좋다"며 미소지었다.

이정후의 홈런 타구는 364피트(약 111m)를 날아가 떨어졌다. 아쉽게 타구가 오라클 파크에 인접한 맥코비만 바다에 빠지는 홈런인 '스플래시 히트'가 되진 않았다.

이정후는 샌프란시스코와 계약한 뒤 "스플래시 히트가 유명하다고 하더라. 도전해 보고 싶다"고 의욕을 드러낸 바 있다.

인도네시아 홀린 정관장, 한국 배구 매력 발산

정관장, 인도네시아 올스타팀과 친선경기서 3-2 승

여자배구 정관장이 한국 배구의 매력을 인도네시아에 전파했다.

정관장은 20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아레나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올스타팀과 친선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2(25-17 25-15 19-25 18-25 15-12)로 승리했다.

인도네시아 아레나는 정관장 홈 경기장이라 느껴질 정도로 한국 선수들을 향한 환호가 대단했다. 특히 지아에 이어 인도네시아 출신 메가가 호명되자 경기장은 엄청난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인도네시아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1만3000장 티켓은 모두 팔렸다.

경기 내용은 더 뜨거웠다. 1세트에선 양 팀의 주전 선수들이 맞붙었고, 2세트엔 양 팀 모두 선수들을 대거 교체해 경기에 나섰다. 3, 4세트에선 선수들에 이어 감독까지 맞바꿔 흥미를 높였다.

이번 친선경기는 인도네시아 청소년체육부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인도네시아 청소년 체육부 산하기관인 인도네시아 스포츠 기금 및 경영관리기관(LPDUK)은 지난 시즌 정관장에서 맹활약한 메가가 인도네시아의 국위를 선양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스포츠를 통한 우호 관계 증진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정관장 선수단을 초대했다.